

2019 세계수영선수권 예산 '암초'

내년 예산 46억원 전액 삭감 ... 조직위·사무국 구성도 못해
윤장현 광주시장 "난관 봉착...국비 지원 안되면 감당 어렵다"

정치권 예산 확보 총력전 펴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개최가 국비 예산 지원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되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대회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감회의에서 "시에서는 어떻게든 국고 지원을 받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해 나가려는데, 현재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애초 U대회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수영장)임시시설만 550억원이 추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자리·복지·먹거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말 고민이 많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윤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영대회를 두고 존폐여부, 난관봉착 등 사실상 포기를 연상케 하는 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윤 시장이 털어놓은 솔직한 심정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대회 개최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출연금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46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이달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던 조직위원회 출범과 내년 상반기 구성될 조직위 사무국 운영도 어렵게 됐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전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조직위와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문제는 FINA(국제수영연맹)와 협약 사항이어서 내년 국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다시 FINA측과 협의를 거쳐 조직위와 사무국 구성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도 통해 살려낼 계획이지만, 녹록지 않은 양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U대회와는 달리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대회 개최 효과 미흡, 지자체 독자 개최 원칙 등을 들며 대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U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한 부채 등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 성격상 대회 반납도 여의치 않은데다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미 FINA에 200만 달러를 예약한데다 500만 달러에 달하는 위약금, 그동안 쓴 유지활동비 등 날릴 돈이 한 두푼이 아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이나 U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명성 훼손은 무형의 손해라는 점에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2019년 7~8월경 열린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3년 5개월만에 마주한 한·일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위안부"·아베 "미래"...갈등 확인 100분

한일정상회담 인식차 여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조기 타결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끝내 강행 ▶3면

광주, 떨고있는 남자 2만명 ▶6면

블루오션 다도해-생일-청산도 ▶18면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인식차가 여전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

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관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언급없이 미래만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한미일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수삼 이사장 내일 사의 허성관 원장은 버티기?

광주전남연구원장 갈등 증폭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이 오는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 사퇴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허성관 원장의 거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허 원장이 2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밝히는 등 굳건히 '마이웨이'할 뜻을 내비쳐 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따른 갈등과 분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장 직권으로 오는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일부 이사들에게 사퇴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시·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성관 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도의회로부터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허 원장은 이날 광주연구원에 출근하면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 불가를 확인했다. 그는 "나를 두고 '원장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맞지 않다"며 "당연히 그만둬야 할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상황이라 버틴다고 하는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원장은 임명 뒤 윤장현 시장이 주재한 광주시 확대간부와 이날 열린 광주시 공공기관장 확대회의에도 불참했지만, 연구원 출근은 물론 국제농업박람회



허성관 원장

회 참관, 지역대학 총장과 연구원 면담 등 원장 행보를 해왔다.

이 때문에 김 이사장의 사퇴 표명이 사실상 본인의 '희생'을 통해 지역내 갈등과 분란을 잠시 잠재워 허 원장을 지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허 원장의 '마이웨이' 행보에 맞서 광주시의회는 3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전남도의회도 보조를 맞춰 오는 9일 개회와 함께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연구원 원장의 사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사장과 원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연구원 이사진들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원장 임명을 놓고 지역인들의 여론도 시끄러운데 이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경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은 "원장 임명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의결권을 박탈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사진들이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 긴급 이사회를 열어사라도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일부 작품 문화전당에 전시"

양 기관 '상생협력' 가시화

(재)광주비엔날레가 내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일부 작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전당측도 "마음을 열고 비엔날레 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의 상생협력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광주비엔날레는 2일 "비엔날레 작품의 문화전당 전시 등을 골자로 한 '2016 광주비엔날레와 문화전당간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했으며 금명간 문화전당측에 이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문화기관을 대표하는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이 손을 맞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계획을 추진기로 했다.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반영됐다.

비엔날레측이 마련한 방안은 내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의 작품을 문화전당 창조원에 전시하고 예술극장 등지에서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비엔날레 전시관과 문화전당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동시입장권 발매,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스마트한 당신은 '앱스타일'
앱이 만드는 현대인의 신라이프스타일
손안의 똑똑한 비서, 앱의 진화

기획 2
"배배로데이" 올해도 챙길건가요?
마케팅 전략이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들
건전한 대안 모색

특집
'목포의 눈물' 80년
한국 대중가요 100년

1935년 탄생 '목포의 눈물'에 얽힌 사연들
실용 달랜 애절한 목소리 '목포의 딸' 이만영
한국대중음악 한 세기를 정리하다

기획 1
스마트한 당신은 '앱스타일'
앱이 만드는 현대인의 신라이프스타일
손안의 똑똑한 비서, 앱의 진화

도시재생, 문화에 몰아넣어-국회외 현장을 가다
주민 주도로 되살린 마을공동체, 런던 코인스트리트

노중준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
빛의 화가들과 고흐를 만나다, 네델란드

리빙 앤 스타일
설유공예가 우영희씨의 빛이 스민 전통 조각보 조명등

스타 데이트
"배우가 아닌 인조가 보이길 바랍니다"
'화정'서 강렬한 인상 남긴 김재원

예향 초대석
휴머니즘 활동가
바람의 딸' 한비아
"진정한 용기는 가슴 뛰는 일로 내딛는 한 걸음"

남도의 장인들
600년 굵긴 강진청자의 맥 잇는
도예가 김경진

주요 기획
'불꽃 예술' 남기고 타계한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

문화 화재
지난 여름 표절 충격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가의 직업실
골판지 상자에 삶의 풍경을 그리는
'부조회화' 작가 양나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독도 바닷물고기 탐구' 펴낸
최운 교수
'북부의 명곡'서 주목받은
작사가 김순곤

문화 화재
아시아 춤의 정체성 찾아가는
'아시아 무용단'
창단

사진으로 보는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